“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3)교직은 평등, 위계는 인정 “
–직제, 좋은 교회 만드는 도구–

■ **최윤배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조직신학)**

보편 교회에 속하는 우리교단의 '대한예수교장로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는 명칭이 보여주듯, '장로회(長老会)'(딤전 4:14; 장로의 회, the presbytery, the council of elders)라는 교회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교단은, 좁게 말하면 '장로교회(長老教会)'에 속하고, 넓게 말하면 '개혁교회(改革教会)'에 속한다. 장로교회의 정치, 직제, 권징(치리; discipline)은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 '장로교회의 직제'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다음호에서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일상적으로 '교회의 직제'(office; 독어-Amt, 네덜란드어-ambt) 또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교단 헌법은 이것을 '교회의 직원(職員)'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4중직인 '목사, 교사(doctor; 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의 목사), 장로, 집사'를 주장하고, 장로교회는 크게 장로와 집사라는 직제를 주장하는데,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이 주장한 두 장로설을 받아들여 '목사로서의 장로, '치리 장로, '집사로 세 직분을 구별한다. 우리교단은 미국 장로교회의 직제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직제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 항존직(목사로서의 장로, 치리장로, 집사)과 임시직(전도사, 권사, 전도인, 서리집사)을 구별하고, 목사로서의 장로와 치리 장로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제정했다.

직제 유용론(有用論)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의 직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직제 절대론(絶対論)의 입장이다. 직제 절대론의 입장은 로마 (천주)교회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와 교사로서 말할 때, 그의 명령과 말은 신앙과 도덕에서 전적으로 무오(無誤)하다.

여기서 직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둘째는 직제 무용론(無用論)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부 '파라-처치(para-church)' 운동 속에서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는 '만인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만이 주장되고, 다른 직제는 무용하고, 불필요하기에 전적으로 배제된다. 셋째는 직제 유용론(有用論)의 입장이다. 대부분의 기독교(개신교)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특히 장로교회로서의 우리교단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직제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교회 본질과 교회 구축과 성장 및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하며, 유익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특별 직제
비록 마틴 루터를 비롯해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Martin Bucer)와 칼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강조해 16세기 중세 로마(천주)교회의 직제 절대론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직제 유용론의 입장에 서서,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함께 특별 직제도 주장했다. 루터의 경우, 어린 아이도 만인제사장직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회중 속에서 설교하고, 성례전을 거행하고, 치리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훈련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임직된 직분을 받은 자가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다. 칼뱅의 경우 교회의 직제는 교회의 본질(esse ecclesiae)은 아니지만, '좋은 교회(bene esse ecclesiae)'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수단으로써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와 함께 교회의 특별 직제에 속하는 4중직(목사, 교사, 장로, 집사)을 주장했다. 우리교단도 모든 교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정의함으로써, 일반 직제(만인제사장직)를 주장함과 동시에 특별 직제(항존직과 임시직)도 강조하고 있다.

직제 유용론의 입장에서 일반 직제와 특별 직제를 다같이 균형 있게 주장해야 할 한국 장로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일반 직제와 특별 직제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해, 특별 직제만을 인정해 직제 절대론에 빠지는가 하면, 일반 직제만을 주장해 직제 무용론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직제의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적 기초와 근거
장로교회에서 모든 직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Christocracy)과 성령의 통치권(Pneumatocracy) 하에 있어야 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주님으로서 그의 말씀(성경과 설교 등)과 그의 영(성령)을 통해 모든 직제 안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신 적이 결코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제는 기독론(그리스도론)적 근거와 기초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제 안에서 통치하시고 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한 방법이다.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전통 속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는 항상 절대적이다. 기독교(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기초를 가진다.

앞면에서 계속

성령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제 속에서 현재케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효과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준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교회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직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직제는 교회론적 근거를 갖는다. 모든 직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돼야 한다. 모든 신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원(항존직과 임시직)과 교회의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대리자가 결코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와 주권과 권위 하에 수단과 도구와 섬김으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섬김) 속에 있는 직제
교회의 모든 직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섬김과 봉사에로 부름 받은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하는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교회로부터 직분자로 선출된 사람은 그 직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직분임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제는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지배권이나 군림의 직분이 아니라, 봉사에로 부름 받은 종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본질상 동등성, 기능상 차이성 속에 있는 직제
로마(천주)교회에서는 직제 간에 계층구조적인 서열(hierarchy)이 심각하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장로교회에서 모든 직제는 본질상 동등성(parity)을 가지며, 기능상 차이성을 보여준다.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기능에 기초한 직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의 각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균형과 상호 조화 속에 있는 직제
장로교회의 직제는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협의회성(collegiality; collegium)과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 구성된 치리회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직제에 절대적 힘이 주어질 경우, 장로교회는 교황이나 감독교회로 변질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다양성만 지향될 경우, 교회가 무질서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구속사적 적응성과 개방성 속에 있는 직제
장로교회는 성경적 관점으로부터 직제를 도출해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속사(救贖史) 속에서 성령을 통해 각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직제에 대해 항상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66권 정경(正経)이 확정된 이후,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사도와 본질상 동등한 직제로 이해되는 직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마틴 부처와 우리교단이 주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말씀 선포, 두 가지 성례집례, 치리 시행)를 따를 경우,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양(牧羊)하는' 포괄적 기능 속에 '가르치는' 기능, '다스리는' 기능, '돌보는' 기능을 항상 균형 있게 포함시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직분을 통해 이 중요한 기능을 구현할 지에 대한 문제는 성경을 표준으로 구속사적 적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교회가 결정해야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직제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비(非) 장로교회로부터 또는 성경적 관점으로부터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같은 직제를 추가적으로 채택했다.

-한국기독공보 3056호2016.08.27(토)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협동목사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고수은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야곱·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톰, 수란잔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7권 제7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2월12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port, Comport my People)

■ **사 40:1-9, 시 73;1-3, 22-28, 마 24:36-51, 골 3:22-25**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할 때 세 군데, 곧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적용을 위한 서신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서 1장~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움으로, 40장-5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과 위로를 56장-66장은 약속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I guess, 다시 말해서 성경을 추측하여 해석 하는 방법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므로 추측을 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이 된 부분은 반드시 성경 안에 다른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사야서39장까지는 해방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러함을 믿음으로 간직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해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인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눅 2:25) 고 기록되어 있음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기다렸음을 증거합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 위로금 몇 푼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시험에 떨진 아이에게 양복이나 구두 같은 선물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죽은 자에게 위로금을 준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위로는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생사 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며 그 답은 '생사 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인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그리스도께 속한다' 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을 가장 영광스런 보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3.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고 회개하라
인간이 영원히 풀어야 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 빠져 나올 수 없는 백성을 my people, 내 백성 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선택된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 죄를 지었으나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사 1:18, 40:2).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즉시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통로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해본 자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경말씀 속에 자신을 흠뻑 젖게 하는 아름다운 체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4.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성경에 유일하게 '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삼상 13:44) 이라고 했던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수렁, 웅덩이에 빠졌습니다(시40편). 이때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기가 있다면 기도뿐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서울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역시 오직 기도 뿐입니다.

5. 위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이사야 40:3)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 캘빈의 이중예언설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예정하신다는 의미로서, '모든 이를 구원하신다' 는 보편적 구원설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예기치 않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마24장). 그때에는 무서운 징조들, 곧 거짓 메시아, 전쟁, 지진, 핍박, 배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이사야 40:3), 하나님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며' 평탄케 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골짜기 마다 돋우어 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사40:3), 비열하고 천박해진 마음을 높여 밝게 하고, 산과 언덕 같이 교만해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며 거짓, 위선의 굽은 마음은 정직하게 하시고, 기복이 심한 감정주의는 공평하고 관용한 마음으로 변해야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복이 심한 감정주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맺는 말
우리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시 73:28).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참 위로가 되심을 믿고 그의 남기신 고난에 동참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안내하며 증거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므로 시련 중에 위로를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로받는 성도로써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는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터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 안에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차순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차도훈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주동재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9: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62(시 14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67(3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딤후 1:7-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고난을 받으라! ····· 김성봉 목사
* 찬 송 Hymn ·····300(40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48:1-2 ····· 인 도 자
찬 송 ····· 363(479) ····· 다 함 께
기 도 ····· 차영도 집사
성 경 ····· 딤후 2:3-6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예수의 좋은 병사" ··· 설 교 자
* 찬 송 ····· 353(391) ····· 다 함 께
* 축 도 ····· 인 도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이안순 권사
성 경 ····· 시 121:1-2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박승기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4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3. 금주 수요예배는 2월 15일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4. 신반포중앙교회 은퇴목사님이신 김성봉 목사님의 주일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 결 혼

1. 신정우 군(신임하, 이승신 씨의 장남)과 김현지 양(1교구 김영선 집사, 권택숙 집사의 장녀) /

2월18일(토) 오후6시 엘타워 7층 그랜드홀(526-8600)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검불인생

뿌리 없는 검불은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고 풍비박산이 되어 날아간다. 소리 없는 미풍에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검불은 자체의 중량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검불처럼 경망스러워 가지고는 불어오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바위처럼 무게가 있는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피 흘리는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죄를 즐기지 아니하는 자, 무엇보다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자가 될 때에 폭풍에도 동요치 않고 창수가 나도 뽑히지 않는 귀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쓸모 없고 무가치한 검불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이웃에겐 소중한 존재가 되며 자신은 보람 있는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